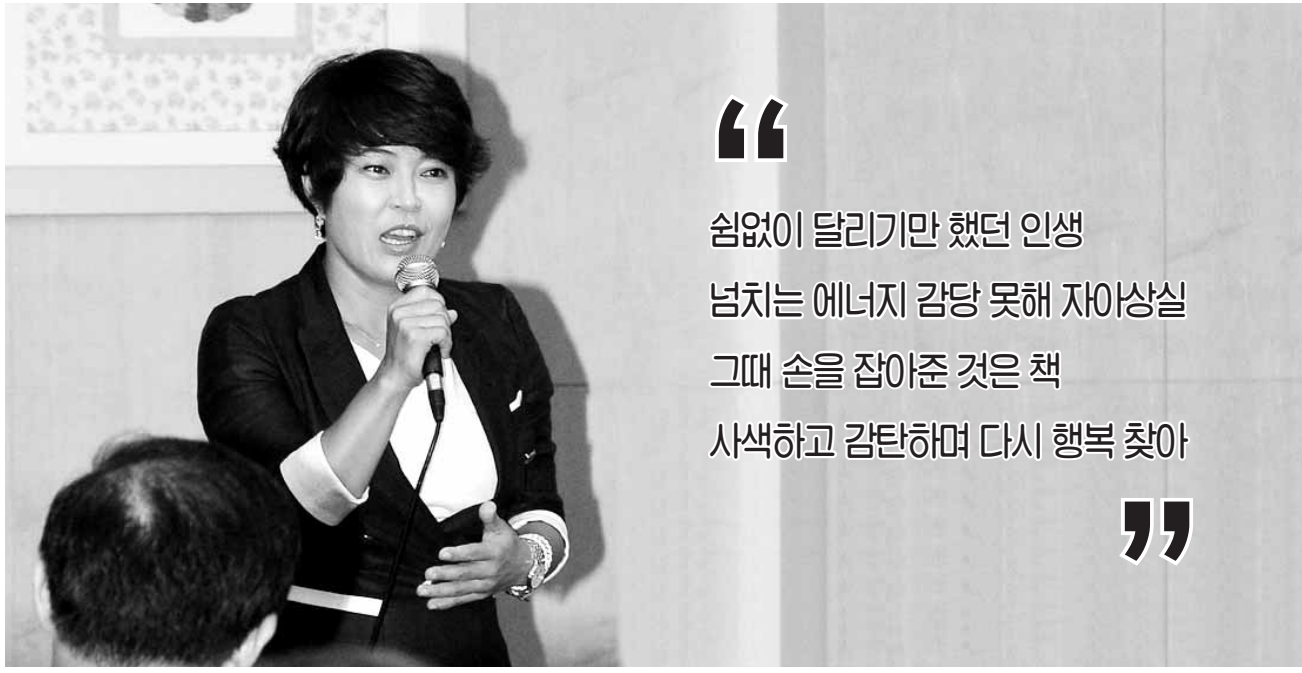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 개그우먼 조혜련



“
쉽없이 달리기만 했던 인생
넘치는 에너지 감당 못해 자아상실
그때 손을 잡아준 것은 책
사색하고 감탄하며 다시 행복 찾아
”

“행복해 지려면 자신부터 사랑하라”

“당신의 인생은 몇 년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는 날 끝납니다. 당신은 그때까지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자신의 도전과 아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책과 경험담에 위트 넘치는 멘트를 버무려 이야기했다. '연예계 독서왕'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시2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개그우먼 답지 않은 이야기들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요즘 조금 예뻐진 조혜련이 인생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다”며 입을 연 그녀는 “인생 선배님을 앞에서 감히 인생 이야기를 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강연을 시작했다.

조씨는 자신의 이미지를 '우주 엄마', '도전과 일본어', '골뎀', '아나까나', '에너지 넘치는 여자', '기가 센 여자' 등이라고 소개했다.

자신이 1남7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남성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대학 진학을 반대했던 부모님 때문에 더 약삭같이 일시를 준비했던 이야기,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연을 소개하며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들로 강연을 이끌었다.

“어렵게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하는 프로그램마다 성공했습니다. '울 엄마', '골뎀' 등으로 뜨고 나니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그를 하면서 CF도 많이 찍고,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는 것이 제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7살 일본 여행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발동이 걸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는 무작정 일본관련 책을 사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신인의 마음으로 일본 진출을 준비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본 매니지먼트 회사의 말을 듣고, 무작정 하루에 100개씩 6개월 동안 1만8000개의 단어를 외웠다. 그때부터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일본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힘없는 일정을 소화한 그는 일본에서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당시 자신을 쉽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말'에 비유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나더니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어린 딸, 일본에서의 평가가 제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만두라고 만류했지만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아를 상실해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책이었습니다.”

조씨는 '시크릿'과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살기 위해서 두 달 동안 무려 70권을 읽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고 해답을 얻었다. “지금 현재를 결정해 버리자”라는 말에 그동안 달리기만 했던 인생을 반성하고 ‘내가 미래를 결정해 버리자’라는 생각에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제가 써준 마지막 순간의 일기를 소개하자면 2070년 5월3일 104살의 나이에도 정정찬 조혜련이 강연을 멋지게 합니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내 자신들의 이야기도 있고, 5개 국어를 하겠다는 목표도 일기

에 적었어요. 제가 최근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제 일기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는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미래일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연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심리학도 공부했다. 동료와 술 마시고 노는 시간보다 한바퀴, 박경철, 법륜 스님 등과 만나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었다. 데이비드 흄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은 조씨가 50번가량 읽은 책이다.

“어려운 행복입니까? 행복은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철학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괴테와 플라톤, 공자, 노자는 평생을 바친 먹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문적으로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답은 같습니다. 책은 우리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클래식도 함께 들으면 좋습니다. 또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사색하십시오. 괴테가 되어보는 것이죠. 사색하면서 나무에 감탄하고, 꽃에 감탄하면 됩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모든 것에 감탄할 줄 아는 점이라고 전했다. 사색하면서 감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도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행복해지는 비법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큰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웃의 여성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웃음) 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 6조원을 들여지만 사람의 감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6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광주 IAC회의서 결정... 5·18기록물 등 한국 총 11건 보유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쓴 '난중일기'(국보 제76호)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광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등재됐다.

한국은 이로써 훈민정음 필두로 조선왕조실록, 저지삼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광주민중항쟁 기록물에 이어 모두 11건에 이르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19일 "유네스코가 지난 1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에서 한국이 등재 신청한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을 등재권고 결정했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를 추진해 최종 등재했다"고 밝혔다.

IAC는 난중일기를 "전쟁 중 지휘관이 직접 기록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워 기록유산으로서의 희귀성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동아시아 열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2~1598년 임진왜란 7년 동안 전장에서 손수 쓴 진중일기로 7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와 주민이 1970~1979년 함께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물 등 2만2000여 건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UN에서도 인정받은 빈곤퇴치 모범사례로, 국가발전의 한 모델로서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라는 점에서 등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AC는 오는 21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사업 현황과 홍보·발전 방안,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의 확대등재 절차, 정기보고·모니터링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IAC 위원들은 2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유네스코 민주인권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현장 등을 둘러보고 순천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로 향한 뒤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관람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 예술감독 위촉 철회 여부 밝혀라”

지역문화단체, 문화부장관에 공개질의서

이영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시예술 감독 위촉에 반발하고 있는 광주지역 문화 관련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예술인총연합, 지역문화교류재단, 광주전남 문화연대는 19일 문화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영철 전시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의 전시예술감독 위촉 철회

회의사가 있는 지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 감독이 아시아문화개발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이라는 본래 임무와 역할 수행이 미비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전시예술감독으로 위촉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감독과 함께 위촉된 김성희 공연 예술감독에 대해서도 “선정절차와

과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연예술감독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문화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달라진 기재부, 지자체 직접 찾아 예산 의견수렴

전남, F1서킷·남해안고속철도 등 사업 건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따리 싸서 정부를 찾아다니던 풍경이 올해는 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전남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이 요구하는 예산을 접수받고, 의견을 듣는 '지역공약·현안사업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을 비

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시·도별 지역공약을 비롯해 2014년도 예산안 요구를 접수받는다.

전남을 찾은 이들 직원들은 영암 F1 서킷, 남해안고속철도(보성~임성) 현장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다.

전남도는 ▲남해안철도 고속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국가비행중

합시험센터 구축 ▲여수 국가산단 종합방재센터 설치 ▲기업도시 활성화 등 16개 사업을 주요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방문 협의가 마무리되는 20일부터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2014년 예산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마련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영기기자 kroh@kwangju.co.kr

동양의학수강생모집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원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의의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심·폐기조,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 34기) 6월 21일(금) 13시
광주 35기) 6월 22일(토) 17시
위치: 생촌역 2번출구에서 운전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교과내용: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시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 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주)일가브라더스
www.bobburger.co.kr(동스밥버거)



동스밥버거 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업설명회” 초대합니다
광주광역시

8명 매장에서 일일 평균 100~150만원 매출 가능
밥버거... 거부할 수 없는 유혹
투자대비 수익성 높은 밥버거로
소자본 창업 성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비용 15평기준 3천만원이면 OK



체인점 모집

- * 50호점까지 창업지원 행사!
- * 3천만원으로 창업 OK!
- * 가맹비 / 보증금 / 관리비 無
- * 8~15평까지 추가금액 無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오후4시
장 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가 19번지
광주YMCA 2층 백제실
(TEL. 062-232-6131)

신청방법 (전화 접수)

TEL. 02-863-8004